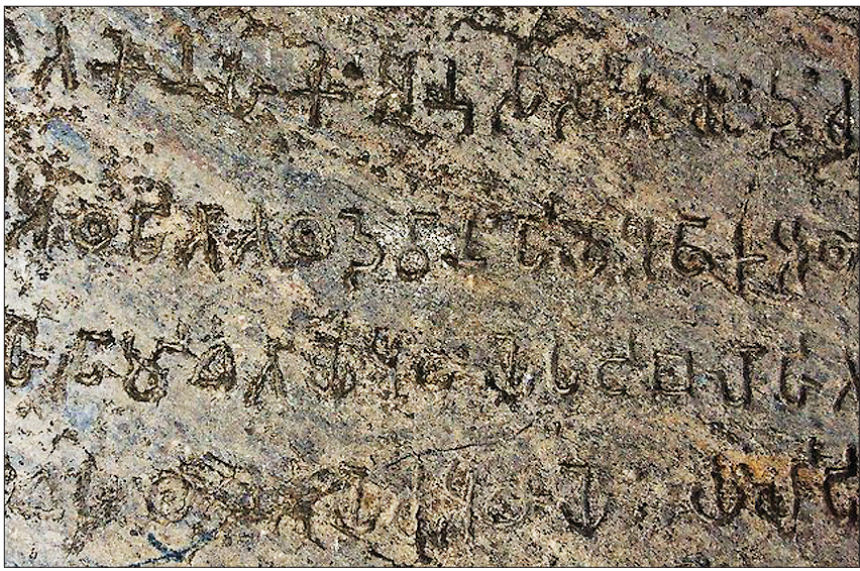


UCLA 연구진, 고대 불교 지역 121곳 발견

국제학술지 '커런트 사이언스' 게재

'아소카 칙령' 비문 토대로 연구 구글 어스,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아소카 시대 글 최초의 문자로 증명'



인도 대륙의 정치, 종교, 언어를 연구하던 고고학, 지리학 교수들과 그의 제자들이 기원전 3세기, 북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시기에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지역을 발견했다. 사진출처=UCLA

미국의 고고학, 지리학이 고대 불교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 121곳을 발견했다.

미국 UCLA대학신문은 5월 26일(현지시간) "인도 대륙의 정치, 종교, 언어를 연구하던 고고학, 지리학 교수들과 그의 제자들이 북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시기에 기원전 3세기경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지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고고학자 모니카 스미스와 지리학자 토마스 질스피가 아소카 시대의 지역으로 추정되는 121곳을 발견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국제학술지 커런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연구진들은 먼저 아소카 칙령이 새겨진 비문 33개가 있는 곳 가운데 29곳을 분류했다. 29의 칙령들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분포한 자연 암반에 새겨져 있었다.

그런 다음 구글 어스 이미지검색 기능과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지리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고대 인도의 연구가 뒷받침될 것이라 추정되는 지역들을 찾았다.

연구진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지역들이 모두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이 지역들이 정확히 검증된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니카 스미스 교수는 "이러한 조사 방식이 추후 아소카 시대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소카의 칙령과 기타 고고학적 발견은 지역 전체의 종합적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소카 시대에 쓰여진 글들은 인도 지역에서 가장 최초로 상용되던 문자였기에 인도에서 아소카 시대의 기념물들은 매우 중요하다"며 "아소카 시대 지역 발굴 외에 당시 인간이 만든 유물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소카의 칙령(Edicts of Ashoka)은 고대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이 자신의 재위 기간 중 기원전 269년부터 231년 사이에 세운, 아소카의 기둥·바위·동굴의 벽에 새겨진 33개의 비문이다.

아소카 왕은 이웃 칼링가 왕국을 침략하여 행했던 끔찍한 폭력 때문에, 그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10만 명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고국에서 쫓겨났다. 양심의 가책에 휩쓸린 그는 불교 신자가 되었고, 전쟁을 그만두었으며, 오직 '다르마(올바른 삶의 원칙)'에 따라서만 정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선포했다. 이 비문들은 현대의 인도·네팔·파키스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이 지역들에 불교가 전파되었다는 확실한 최초의 증거들이다.

스미스 교수는 "아소카의 칙령에는 인도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들 중의

한 명의 후원 하에 불교가 최초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시기 동안 불교는 지중해 지역까지 전파되었으며 많은 불교 기념물들이 만들어졌다"며 "비문에는 아소카가 불교로 귀의한 일과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 그의 도덕적·종교적 교훈,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 아소카는 병원과 휴게소를 짓고 우물을 파게 했으며, 멀리 스리랑카까지 선교단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교수의 연구는 오랫동안 인도 전역에서 진행돼왔다. 이번 연구를 위해 UCLA의 후원을 받은 그는 자연생태학과 생물학 및 지리학을 연구하는 질스피와 함께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질스피 교수는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연구 프로젝트 과정을 보고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UCLA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팀을 짜 아소카 칙령에 나오는 곳을 데이터와 이미지를 활용해 환경 분석했다"고 말했다.

질스피 교수의 연구팀은 특정 성분의 바위에 새겨진 문구, 아소카왕 시대인 서기 200~300년 시기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 칙령이 새겨진 경사진 바위 등 세 가지 요인이 발견되는 곳을 토대로 고대 불교지역을 추려나갔다.

질스피 교수는 "이런 발굴작업 방식이 높은 정확도를 가져와 고대 불교지역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우리의 발굴 방식을 인도, 파키스탄, 네팔 지역 학생들과 교수진들도 적용해 아소카 칙령의 위치들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환자 위한 '불교적 영적 치유' 美서 인기

New America Media, 영적 치유 활동하는 스님들 '주목'



세이간 스님은 금속 그릇으로 된 티베트 악기를 활용, 환자들을 위한 영적 치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사진출처=here&now

불교의 마음챙김명상이 서양사회에 빠르게 흡수되는 가운데, 다문화 소식지 'New America Media'가 마음챙김명상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소개해 주목된다. 특히 연명치료 또는 말기암 환자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평온을 찾는 방법으로 불교 명상이 각광받고 있다.

'New America Media'는 5월 27일 "약 300만 미국인들이 유희사상을 가르치는 불교를 따르고 있다. 대부분은 명상과 마음챙김에 매력을 느낀 '베이비붐' 세대의 서양인"이라며 "이로 인해 불교의 영적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 몇몇 병원에는 상담 스님들이 주둔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New America Media'는 병원서 환자를 위해 명상치유법을 실시하는 세이간(Seigan) 스님을 소개했다.

세이간 스님은 병실로 들어가 가장 먼저 환자에게 "오늘 하루 어떤가요?"라고 묻고 뒤, 간단한 대화를 이어간다. 침대에 몸을 의지한 중환자들은 대화가 매우 어렵지만 천천히, 그리고 작게 스

님의 질문에 답한다. 이는 환자에게 주체의식과 용기를 주기 위한 방법이다.

그 후 세이간 스님은 금속 그릇으로 된 티베트 악기를 나무 막대로 두드린 다. 명상이 시작되고 동시에 평화를 불러오는 의식이다. 이 영롱한 소리에 맞춰 환자와 그 가족들은 눈을 감고 점차 명상에 빠져들며, 삶과 죽음에 대한 짐작들을 벗어던진다. 불자가 아닌 환자 및 가족들도 함께할 만큼 세이간 스님의 영적 치유 명상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마음치유명상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불교적 영적치유가 가능한 스님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New America Media'는 "영적 치유 스님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더 크다"면서 "또 영적 치유 스님들을 교육하는 곳은 미국 내 오직 1곳, 뉴욕명상치유센터(the New York Zen Center for Contemplative Care) 뿐이다. 스님들은 이곳서 엄격한 인증교육을 거쳐 '영적 치유'로서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패달로 강 가로지를 때 가장 좋아"

日 스님, 브라질 올림픽 카약부문 국가대표 출전

일본의 한 스님이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 일본 카약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 맹훈련 중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5월 30일(현지시간) 일본 나가노에 위치한 1400년 전통 사찰 다이칸진사(寺)에 주석 중인 카즈키 야자와(27) 스님을 소개했다.

야자와 스님의 하루는 일반 승려들과 다를 것 없다. 새벽부터 일어나 오후 3시까지 하루 5번의 경건한 예불을 올린다. 그러나 그 후의 생활은 금메달 획득을 위해 훈련하는 카약 선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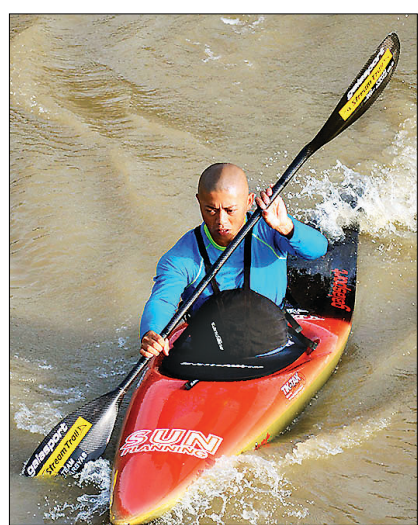
스님은 사원서 하루 일정이 끝나면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사이가와 강으로

간다. 오는 8월 열리는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서 카약 슬라럼 남자 싱글 부문에 국가대표로 출전,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카약 훈련을 한다는 야자와 스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연습 하려고 한다"며 "패달을 아래위로 움직이며 강을 가로지르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야자와 스님은 출가 전 2012년 런던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카약 슬라럼 남자 싱글 부문서 9위를 차지, 일본 역사상 신기록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 일본 카약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카즈키 야자와 스님. 사진출처=아사히신문

님은 은퇴 후를 걱정했다.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에 카약선수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스님은 케네디 코야마 나가노 카누협회장을 만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코야마는 다이칸진사 근처 한 사찰의 대제사장을 지내면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이후 2013년 야자와 스님은 불교에 귀의, 지난 해 4월 일본 카누 경기서 우승해 브라질 올림픽 출전권을 땀다.

야자와 스님은 "곧 있으면 브라질 리우에 간다. 꼭 우승 하고 싶다"며 "나중에 코야마 회장처럼 어려움을 겪는 선수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불법의 온상' 태국 호랑이 사원. 동물학대 및 불법 밀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온 태국 '호랑이 사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태국 간사나부리의 호랑이 사원은 스님들이 137마리 호랑이와 함께 사는 모습이 화제가 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최근 이 사원서 죽은 호랑이새끼 40마리가 발견되며, 그간 의혹으로 남았던 호랑이 불법 번식과 밀매, 호랑이에게 불법적인 약물을 투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태국 야생생물보호청은 6월 1일 호랑이들을 전부 압수해 동물보호구역으로 이송했다. 당국은 올 초부터 호랑이 몰수를 시도했지만 사원의 반발로 실패,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 사진출처=Mail Online 박아름 기자

경전사경·사경지

경전사경 제31호 우리말 금강경 할인가 1,800원 (100권 이상) 정가 3,000원 (1권) •제본: 좌철 무선제본 •크기: 19cm×26.2cm	경전사경 제32호 우리말 지장경(上) 할인가 2,100원 (50권 이상) 정가 3,500원 (1권) •제본: 좌철 무선제본 •크기: 19cm×26.2cm	경전사경 제33호 우리말 지장경(下) 할인가 2,100원 (50권 이상) 정가 3,500원 (1권) •제본: 좌철 무선제본 •크기: 19cm×26.2cm
--	--	--

반아심경/평명진언 탐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구 성: 한지남장
•크 기: 636mm×313mm
•종 류: 한문, 한글

파라핀양초(특)
정가 50,000원
1.80×12병 / 한불양초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2박스 이상일때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 90,000원
- 돈타레 (40개입) @ 90,000원
- 원기둥 (20개입) @ 90,000원

영가옷 B형-남 할인가 1,000 (100명 이상)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800 (100명 이상)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남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160 (600개 이상) 정가 200원
--	--	--	--

수자영가옷 할인가 600 (100명 이상)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정가 1,000원	금강경타다라니 할인가 160 (600개 이상) 정가 200원
---------------------------------------	---	---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정가 3,000원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정가 3,000원	종이신발(남/여) 1컬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500원
---	---	---

제브라붓펜 3,4,5호 할인가 2,100원(50개 이상) 정가 3,000원	한지점은 위패(대/중/소)/인쇄점은 위패(대/소) 정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 (1000개이상)	한지·인쇄점은 영가옷(남/여) 정가 30,000원 (100명) 할인가 @270원 (1000명이상)
---	---	--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0-3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다룩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